

# 제22회 PIARC 세계도로회의의 참관기

## (XXIInd PIARC WORLD ROAD CONGRESS)

노 성 규 한국도로교통협회 선임연구원

도로분야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도로협회(PIARC)에서는 회원국들의 기술교류와 최근의 연구동향을 논의하고, 신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세계도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제22회 PIARC 세계도로회의가 2003년 10월 19일(일)부터 10월 25일(토)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남아프리카지역 국가 중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도로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포장분야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금번 세계도로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많은 도로분야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분야의 선진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도로공

사 도로교통기술원의 안성순원장, 김형배박사, 제일건설교통연구원 강호익원장 등 4명이 참가하였다.

### PIARC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Road Congress)

1909년 설립된 세계도로협회(PIARC: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Road Congress)는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정치, 비영리 단체로서 도로 및 도로공학과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며, 2003년 현재 107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PIARC에서는 도로교통분야와 관련된 연구활동, 기술개발, 회원국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세계도로회의(World Road Congress)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도로회의

\* :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는 조직되지 않은 상태임

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매 4년마다 국제동계 도로회의(International Winter Road

Congress)를 개최하고 있다.

PIARC에서는 <표 1>과 같이 도로기술

<표 1 > PIARC의 연구주제 및 기술위원회 활동현황

Strategic Themes	Technical Committees			
ST 1 : Road Technology	C1	C7/C8	C12	
ST 2 : Road Transport, Liv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4	C10	C14	C19
ST 3 : Road and Road Transport Operation	C5 C18	C13	C16	C17
ST 4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Road System	C6	C9	C11	C15
ST 5 : Appropriate Levels of Road and Road Transport Development	C2	C3	C20	T

<표 2 > PIARC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C 1	Surface Characteristics	C 12	Earthworks, Drainage, Subgrade
C 2	Community Consultation	C 13	Road Safety
C 3	Technological Exchanges and Development	C 14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
C 4	Interurban Roads and Integrated Interurban Transport	C 15	Performance of Road Administrations
C 5	Road Tunnel Operation	C 16	Network Operations
C 6	Road Management	C 17	Winter Maintenance
C 7/8	Road Pavements	C 18	Risk Management for Roads
C 9	Economic and Financial Evaluation	C 19	Freight Transport
C 10	Urban Areas and Integrated Urban Transport	C 20	Appropriate Development
C 1	Road Bridges and other Structures	T	Terminology

(Road Technology), 도로교통 및 지속가능한 개발(Road Transport, Liv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도로 및 도로교통 운영(Road and Road Transport Operation), 도로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Road System), 도로 및 도로교통 개발의 적정 수준(Appropriate Levels of Road and Road Transport Development) 등 도로교통 분야에서 5가지 연구테마(ST: Strategic Theme)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구성되어 각 테마별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PIARC내에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표 2>와 같으며, 각 기술위원회에서 2000~2003년간 연구된 결과들이 금번 제22차 PIARC 세계도로회의에서 발표되었다

## XXII<sup>nd</sup> PIARC WORLD ROAD CONGRESS

금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제22회 PIARC 세계도로회의는 “Connecting The World”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도로교통분야 전문가 약 3,000명 이상이 참가하여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금번 세계도로회의는 더반의 ICC(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기술세미나(Technical Session) 뿐 아니라 DEC(Durban Exhibition Centre)에서 기술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선진국의 도로분야 기술동향과약은 물론 선진



[그림 1] 회의장 입구

기술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Technical Session에 앞서 시작된 Ministers Session에서는 캐나다, 영국, 중국 등 14개국의 도로교통분야 국가대표들이 자국의 도로·교통정책과 현황, 목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향후에는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도로정책이 필요하고, 국민에 대해 보다 많은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발표국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다.

Technical Session에서는 PIARC에서 선정한 도로교통분야의 5개 연구테마(Strategic Theme)에 따라 각 해당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중심으로 약 30편의 National Report와 180편의 Individual Paper가 발표되었다. 또한 기술전시회에서는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약 20여개국이 국가전시관(Country Pavilions)을 만들어 자국의 최근 도로교통분야 기술동향을 소개·홍보하였으며, Dynatest Ltd 등 전세계 약 40업체 이상이 업체전시관(Individual Exhibits)을 통해 도로교통분야(포장, ITS 등)의 신기술, 최신장



[그림 2] 기술전시회의 Canada 전시관  
(Country Pavilions)

비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N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PIARC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도 100명 이상의 도로교통분야 종사자들이 참가하여 논문발표와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하는 등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National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금번 회의에서 단 한편의 논문발표도 없었던 점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개최될 세계도로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전문가 및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문발표를 통해 국내 도로교통분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